東亞日報

發行兼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illegible]

府面協議員의 選擧有權者에게

人格과抱負를審查하라

府面協議員 選擧期日도 인제 멧칠이 아니남앗다 特히 이에 當하야 여러분有權者의 責任이 重한것을 깨다른다 여러분이 가지신投票權은 不充分하나마 一種의公民權이다 따라서 이의行使는 即 公的行爲이다 이미 公的行爲인以上 거기에相當한 社會的責任이 附帶되는것이다 이意味에잇서 여러분有權者各位의 充分한考慮를 促치안할수업다

여러분 有權者의 가지신選擧權으로 말하면 各府面에 一年以上의居住와 府面稅五圓以上의 納付를 完了한者가 아니면 享有치못하는 特權이다 따라서 멧百名 乃至 멧千名의 府面居住者中에서 特히 少數의有資格者인 여러분의게 이選擧權을 맷긴것이다 이點으로 보드래도 여러분의 가지신選擧權은 重大한特權인것을 可知할바다 그러면 엇지하야서 特히 여러분有資格者의特權을 주게되얏는지를 한번생각할 點이다

即 以上의말한바와 가치 一年以來의居住와 五圓以上의納稅를 特히 法令으로 制限한 根本精神이 어듸에 잇느냐하면 이것은 法律上의推定이지마는 적어도 一年以來의 居住를繼續치 안한者이면 府面行政에 對한要素의觀念과 知識이업는것을 想像하기 때문이다 또 五圓以上의納稅를 條件으로한것은 納稅資格이 만흐면만흔만큼 府面行政에 直接의利害가 잇슬뿐아니라 相當한納稅者이면 所謂恒產階級에 屬하는것임으로 恒產階級인以上 東洋固有의 有恒產이라야 有恒心이라는 觀念下에서 恒心이 잇다고 假定하는 一般恒產階級에 이特權을 준것이다 그러면 그恒產의標準아 얼마나한 程度를 가르치느냐하면 各個의社會狀態와 여러가지貧富文野의 程度가各히 다르니까 一定한標準이 업지마는 오날날 朝鮮社會의狀態에잇서서는 納稅五圓以上의 程度이면 可하겟다는立法者의 假定에依하야 이러케制限한것이다

要컨대 여러분有權者는 여러분의居住하고잇는 各府面에對하야 公共的愛着心이 잇는것과또 多少의知識이 잇슴은더 實際의府面行政에 通曉하는 府面行政에 直接의利害를 가진 有恒產有恒心의 階級이라는것을 官府의推定으로 公認한것이다 이여러가지 資格이잇슴으로 特히府面行政의諮詢에 應하는府面協議員 選擧를 여러분의게 맷기여 가장適當하고 賢明한協議員을 選擧케한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選擧行爲는 全體府面民을 代表하야 이權利를 行使하는것으로 여러분各自의良心에 對한責任은 勿論이요 一般府面民에 對한社會的責任이 잇는것을 記憶할것이다

그러면將次 엇더케選擧를하여야 一般府面民의囑望을 孤負치안할것인가 이點에잇서 充分한 考慮를要할바이다 即 適當한 府面協議員의標準은 무엇인가를 생각할必要가잇스며 그標準에依하야 各個候補者의 資格을慎重히 審查할必要가잇다 그러면 여기에말하는 府面協議員 可堪의標準은 무엇인가를 大略으로觀察하면 人格과抱負의 두가지要素가 잇다 即 그사람의平素人格이 엇더한지 또 그사람의府面協議員으로서의 엇더엇더한 抱負가잇는지 업는지를 慎重히 審查한後에 兩條件에適合한 可堪人을 擇할것이다 萬一以上의두가지 要素를兼備치못하고 다만한가지 要素만 가졋다하는境遇에는 如何히할것인가 이도 各個의 境遇에依하야 다를것이나 大體로보면 抱負보다는 몬저 人格을先位에 推重치안할수업다 如何間 有權者各位의 貴重한一票는 決코 情實이나 物質에 拘束할性質이 아닌同時에 公權에對한 社會的責任을 良心에訴하야 自覺할바이다 이리하야 第二回의 選擧를 意義잇게 하기를바란다

震災後經濟界에對한考察(十九)

鮮于 全

關東震災와 朝鮮(續)

(一〇)結局은財政緊縮

大震災의影響에依하야 補助金이減少되고 朝鮮事業公債募集이困難케되고 그러나此의歲入減을補缺키能할租稅의收入을增加키不能하다하면 歲入減에依하야歲出도減少되지아니키不能하야 結局財政方針은緊縮方針에歸케되야 財政이緊縮되면緊縮되느니만치 朝鮮經濟界及當局의政治方針에動搖가生할듯하다 그러면其緊縮의程度와方面의如何는 朝鮮經濟界及治鮮方針에影響을直及할지니 其影響의範圍及程度는如何할가 朝鮮의財政은大正八年即齋藤總督이文化政治를標榜한後大膨脹을致하얏다 即大正七年度外지에 僅히六千萬圓臺에不過하든歲出은 大正八年에九千萬圓 九年에一億一千萬圓 十年에一億五千萬圓 十一年에一億五千萬圓 十二年에一億四千萬圓과如히 五個年間에約三倍나膨脹되얏고 歲入이亦是增稅 補助金의增加 公債增募에依하야 그와가치膨脹되얏다

	歲出	歲入
大正三年	五五,○○○,○○○圓	六三,○○○,○○○
四年	五六,○○○,○○○	六二,○○○,○○○
五年	五七,○○○,○○○	六八,○○○,○○○
六年	五一,○○○,○○○	七四,○○○,○○○
七年	六四,○○○,○○○	一○○,○○○,○○○
八年	九三,○○○,○○○	一二五,○○○,○○○
九年	一一四,○○○,○○○	一二四,○○○,○○○
十年	一五七,○○○,○○○	一五七,○○○,○○○
十一年	一五八,○○○,○○○	一五八,○○○,○○○
十二年	一四五,○○○,○○○	一四五,○○○,○○○

右表에서推知할바와如히 朝鮮總督府財政이大正八年度以後 歲入歲出共히大膨脹을致한것은 上說한바現當局이 朝鮮의政治方針을 文化政治標榜下에 分重히産業經濟方面에置한外에 이오 其方針을進行키爲하야서는 換言하면 朝鮮을經濟的으로 統治하자면 中央政府의相當한 財政的應援을 得치못하고는 其方針을實現키難하겟슴으로 今日外지의 治鮮方針實行에重大한關援은 有하엿다 그러나中央政府가震災地復興財源에對하야 非常의困難을感케된今日 前日과如한財政的應援이無케될뿐더러 總督府는不得已財政緊縮을 圖치아니치못하게될터인데 其緊縮程度에在하야는 總督府의 財政膨脹의內容을側하면 歲入에在하야서나 歲出에在하야서나 經常費와臨時費의膨脹割合이相比相同하나 歲入에在하야 詳察하면 經常部中租稅의增徵이大하며 臨時部中에補助金 公債歲入의增加가亦大하다 即補助金에在하야는大正七年의三百萬圓은 同十二年에二千五百萬圓에 事業公債에在하야는大正七年의一千三百萬圓이 同十二年에二千九百萬圓(十一年度繰延金合計)에增加하야 大正七年以後五個年間 兩者의增加合計二千八百萬圓을示하얏다 震災後今日即大正十三年度 歲入豫算에在하야 中央政府로부터受할補助金及公債募集定額이何程度에까지 下할가는今에測知키難하나 兩者何者에在하야서나前과同一치못할것은勿論이다 此에加하야移入稅及輸入稅一部撤廢에依하야生할歲入의減少 經濟界不景氣에依하야生할營業稅 所得稅收入의減少도必히少치아니할터이다 歲入經常部의輸移入稅及營業稅所得稅의減少를 東京政府의標準見積에依하야約一割減되다하면 其減收額이約二百萬圓에至하겟고 補助金公債收入에在하야 同一한割合의減收가生한다하면 其減收額이三百萬圓內外가되겟고 其他一般의 租稅及營業에在하야도 經濟界의 不景氣에依하야 減收가生할것은 必然의事인즉 結局總督府의十三年度歲入豫算은 十二年度豫算額一億四千萬圓의一割可量一億三千萬圓內外에止치아니할가 想測된다 歲入減은直히歲出에影響하는者인故로 以上減收될財源에依하야 經營或은計劃되엿든各種事業은 自然縮少되지아니치不能하다

朝鮮史概講(四三)

斗溪生 李丙燾

第二篇 中古史 (高麗朝)(續)

第三章 契丹의來寇(續)

(三)姜邯贊의凱旋

以後契丹의使者는자조와서或은我를貴하고或은그返附를促하얏스나 高麗의朝廷은返還의意思가조금도업섯다 일로써顯宗五年부터 契丹은我의遼境을侵略하고 或은架橋를鴨綠江에設하기도하고 或은城堡를江東西地에築하기도하야 그간彼我의接戰과 彼此의勝負가여러번잇섯스나 이는但只小衝突에지나지못하고 實相大軍의襲來는 顯宗九年冬十二月 丹將蕭排押(이는蕭遜寧의兄인대 麗史에契丹蕭遜寧이라한것은誤)이 兵十萬來侵이랄함은그릇된것이다 遜寧은 벌서前年에그太后의怒에觸하야 賜死하엿섯다)의都統下에現出되얏섯다 我國의上元帥姜邯贊과副元帥姜民瞻은이미二十萬의大軍을거느리고 寧州(今安州)에서屯하더니 이제二將은急報를듯고 興化鎭(義州)에往하야 精騎萬二千을山谷中에伏하고 大繩으로써牛皮를엮어城東大川(今義州三橋川)을막어노코 丹兵의襲來를期待하다가 문득을보고 我軍은塞을트고 伏兵을發하야 크게敵을破하얏섯다 蕭排押은敢히更戰치못하고 間道로開京을直趣하다가 慈州(慈山)에서姜民瞻에게尾擊을밧고 馬灘(大同江의渡津 今美林津)에서도江을건너에 我兵에게擊破를當하얏섯다 排押은또이에不拘하고 翌年正月에는開京을距하기不遠한곳(即今新溪東南二十五里)에外지侵入하얏스니 戰마다利를보지못하고 마참내殘軍撤退의運에싸지엇섯다 回軍途上에 我軍의掩擊을맛나辛苦가極이업는中 龜州(龜城)를지날때에는 더욱我將姜邯贊等의猛烈한攻擊을바더 慘憺한敗衂에싸졋섯다 敵의僵尸가野를蔽하고 人馬甲仗을得함이 不可勝數이엇고 敵의生還한者가겨우數千人을넘지못하얏다한다

二月(即顯宗十年)契丹兵過龜州, 邯贊等邀戰於東郊, 兩軍相持, 勝敗未決, 宗鉉(金…)引兵赴之, 忽風雨南來, 旌旗北指, 我軍乘勢奮擊, 勇氣百倍, 契丹兵奔北, 我軍追擊之涉石川, 至于盤嶺, 僵尸蔽野, 俘獲人口, 馬馳, 甲胄, 兵仗不可勝數, 生還者僅數千人, 契丹之敗未有如此之甚……(麗史姜邯贊傳)

邯贊이三軍을잇글고 凱旋하야도라옴에 顯宗은親히이를迎波驛(今興義驛)에出迎하야 綵棚과奏樂속에將士를宴하고 또親히金花八枝를邯贊頭上에揷하고 左로그手를執하며右로觴을執하야 慰嘆하기를마지아니하얏다한다 邯贊은實로往昔隋軍을清川江에서破滅하든乙支文德과아울러일커르는海東의名將이엇다

그러나當時高麗는屢年戰役에 이미厭疲를感하고 契丹에서도出兵의結果번々히失敗를招하야 서로平和에對한希望을가지게되얏섯다 그리하야同年即顯宗十年八月에彼我의使節이交驩된後로부터는 마참내和를맷고 關係를回復하얏섯다 그런즉丹主의高麗에對한企圖即入朝問題와六州還附問題는 空中樓閣에도라가고말엇섯다

資本制度의崩壞經路(二)

辛泰嶽(寄)

一、資本制度는消滅한다(續)

그럼으로 맑스의「資本論」은 다만資本制度의 作用과運轉에 對한 說明뿐아니라 그와同時에 그歷史的評價오 鑑識이다

그리고「經濟學批評」이라는「資本論」의 小標題는 맑스以前에 資本制度의 實際作用에 說明을試한 經濟學者의 學說批評이라함보다 차라리 그들이 資本制度의 究極의 消滅이 다々를바 그傾向과 法則을 鑑識치못한데 對한批評이라함이 가장適當할것이다 맑스에 依할것갓흐면 資本制度의 生産及分配의制度는 그속에固有內在한 여러가지 矛盾으로 充滿되얏다 萬若資本制度存在의法則을 되는대로 그냥 放任할것갓흐면 資本制度自身의發展은 急速케되야 그最後의 破壞를 資本制의 우에 던질것이다 웨그러냐하면 資本主義의 法則이 元來矛盾撞着된것일뿐 아니라 또한資本主義의發展이 임이 그腳下에잇는 矛盾때문에自己를 危殆케하는 程度에 達하얏고 또 이것을 破壞하야 그리고 그에代할바 勢力과要素가 漸々우리의眼目에 展開되는外닭이다 그리하야 資本主義에代할바 制度는 明確한形態와 輪廓을 가지게되고 그大體의形想와 外觀은 鮮明하게 우리의 眼前에 낫하내인다 그리고그우에는「社會主義」라고 大書銘記되얏다

二、「맑스」의社會主義는價値學說上에立脚

그러나 이研究를 進行하기前에 우리에게는 한疑問이 생긴다 即「修正說」이 出現한以來 아마「맑스」學說體系中에 價値學說과 社會主義가 엇더한關係를 가젓는가하는 問題처럼 만흔議論을 이르키고 相反의意見을 生케한것은 업슬것이다 意見의 分裂은 대개 正統「맑스」主義와 修正派「맑스」主義의 사이에 密接한 相互關係가 잇슴을 主張하고 後者는 이것을 否認한다 더구나 이問題에 對한 이갓흔 分派는 그리嚴重할것은 업스나 갓흔陣營에 屬한「맑스」批評家들도 이問題에 對하야는 從々絕對相反의 見解를 가진다 그리하야 이問題에關한 議論을 一瞥할것갓흐면 이에도 또한『맑스』說에 對한 거이絕望的인 無理解의 狀態가 가장有爲의 맑스批評家사이에도 흘느는것이 暴露될것이다

쓰강 바라노우스키에依하면 (그는이點에 잇서서는 만흔正統맑스主義者와 一致함) 『맑스』는 어데外지던지 그資本主義發展의 法則이라고認定한 法則으로서 社會主義의 基礎를삼엇다 그리하야『맑스』는이法則을 그基調인價値法則의 特殊한 性質에서由來된것이라하얏다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81)

廉想涉

(후편) 四一五

도홍이는 잠간 안젓다가 『공부하시는데 나가는사람이 와서......』하며 엉거주춤 니러나랴하얏다 그러나 문수에게는 그소리가 비쏘는수작가치 들니엇다 석태는혼자 무슨궁리를하는사람처럼 눈을껌벅어리고 안젓다가 도홍이더러

『거긔잠간 기다리우』하며 명수를 눈짓을하야 가지고건넌방으로 드러갓다

『내게 한오륙원돈잇스니가지고나가서 어데로든지 데리고가 이야기를해보게그려』하며 석태는지갑을 쓰내엇다

『아니 그러지아녀두 조아!』

명수는 석태가 그와가치 주선을하야주는것이 고맙지안은것은아니나 지금당장에 도홍이를 ―오분々々으로생각한다는도홍이를자긔혼자 데리고나가는것은 도홍이부러우슬것이요 종환이에게도겸연쩍거도하고 한편으로는 이야기가이러케된뒤에는 도홍이와마조대하야안즈면 무어라고수작을부쳐야조흘가하는 수즘은생각도드러갓다 그뿐아니라 석태가 도홍이문데에대하야 자긔도약간은 마음에 끌리면서 명수에게 열심으로주선을하야 주는것은 마리아에게 다른생각을가질여유가업게만들랴는 수단가치생각되어서 불쾌한써도만엇다 ―석태는 쓰내든지갑을 다시너흐며

『그럼 내가데리고가서자셰히무러봄세!』하고 마루로다시나왓다 마루에안젓든사람들은 방에서 나오는두사람의 눈치만바라보앗다 그러나 도홍이는 석태가 특히명수와 비밀한이약이를하고 나오는것을보고 미덥성스럽게 생각하얏다 종환이가명수에게 중매를든다고 써드는것은 실업는소리라하드라도 석태와지 명수에게 등켱하는것을보면 종환이일치한것갓고 또설사명수가 돈에굴라는 한이잇드라도 석태가뒤에잇스니까 미덥성스럽다는말이다

도홍이와 석태가 나가뒤에 문수는아이를홈려서 느리노흔그룻등을치우라하고 자긔는책상압흐로닥어안저서 책을펴다뒤수잇는대로 정신을가다듬으라는모양이나 글시자는가로뛰고세로뛰엇다

『석태가 무어라구해?』

종환이는 주인에게 자리를내여주고 비커안저서 여전히삼지를 드려다보고안젓다가 순한한낫빗으로 명수를 처어다보앗다

『흥! 날더러 어데든지 데리구가서 이약이를하라구!』하며 명수는 종환이의눈치를 살피드시 마조처어다보앗다 포도주한잔에 발개진 명수의 얼굴에는 인제야 긔죽을 피우게되엿다는 눈이 아까와가튼 긴장한긔색이 스러졋다

『가봅설 그랫지!』하며 종환이는웃다가 말을다시이어서

『나는그계집애를 머리스속에 그려볼째는 말할수업시 입분것갓다가도 딱만나보면 곰세루덤증이나서 아모감정도 니러나지를 안으니 웬일인지 몰라!』하며 품업시 혼자우섯다

『김군의경향(傾向)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지!』

명수는 무슨다른생각을 하는사람처럼 힘업시대스구를하얏다

문수는 책에다가 고개를박고 두사람의이약이에 귀를 기우리고잇다가

그「웨, 조용々々히 못해!」하며 그릇을치우든아이가 류리잔부듸는소리를 내이니까 소리를 색지르고 발딱 니러나서 양복저고리를 써어입고 마루끗흐로나가더니 모자와단장을 가저오라고 어린아이더러 소리를색々질은는 한편에

『이밤중에 또어데를 간단말이냐?』

안방에서 러지어나오는 어머니의 노긔를품은 거세인목소리가 맛장구를 첫다

질링

斷根保證

嶄新한門專學理와慎重한實驗의一致點에서 完成한本劑는服用後三十分이면化學變化에 依하야强烈한殺菌力을發하야奏效如神하오니 須히本劑一劑를試用하야보시옵

(主治) 男女淋疾, 五淋, 膀胱炎

輕症 十日分 壹圓
慢性 十日分 貳圓

責任保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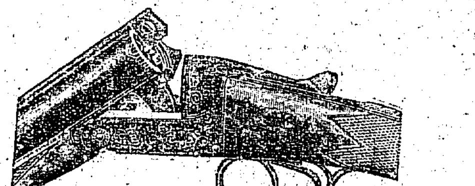
京城府仁寺洞七五 朝鮮婦人藥房

◉理髮器具販賣大擴張◉

特等品三圓 外面刀其附屬品五品無代添付

⊙品質精選切味良好한는弊商會에特色 地方注文迅速酬應

京城府黃金町三丁目貳百貳拾九番地 理髮器具直輸入商 (加) 加島商店



各種獵銃及獵具類

(型錄送呈)

毛利銃砲火藥運動具店

京城南大門外　電話長本 一五五二 二三四

タカヂアスターゼ

다 가지아스다― 제

强力消化素

慢性消化不良、人工營養兒消化不良、胃酸過多症
下利를合併하는腸性不消化乃至異常醱酵性消化
不良等모든消化不良과消化의促進에依하야治癒
를促하는胃腸諸症에適應함

內外醫家의實驗報告集有, 申越次第進呈함
粉末·錠劑有◎各地有名藥舖에서販賣함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臺北市表町·大阪道修町 支店·出張所

(T―1)

治積胸痛丸

年久積滯神藥

[illegible]

廿一日分 定價金 一圓八十錢

振替京城七○四一 京城鍾路二丁目 詩山藥房

松竹館

◆當十四日(水)부터寫眞交換
◆米國스크링會社 實寫 比律賓의水牛 全一卷
◆米國골드윈社映畫 正喜劇 술의세상 全五卷
◆米國유니버살社大特作 人情劇 荒浪의戰男 全六卷
◆米國[illegible]大作品 活劇 英雄깃도 全十五卷 第一回 第二篇 三卷上映

竹松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

◆十六日부터名映畫特別大公開
◆米國메트로社映畫 人情劇 犬忠 全一卷
◆米國골드윈社映畫 大活劇 古城의秘密 全五卷
◆伊太利카비르社大傑作 宗敎劇 예수一代記 全三卷
◆伊太利카비르社大傑作 宗敎劇 어대로가나 全六卷
◆其他實劇喜劇數種
本劇場의音樂隊는市中招聘이[illegible]
京城府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化門九八四番

活版印刷

印刷鮮明! 料金低廉!!
校正嚴密! 迅速酬應!!

(但名啣은印刷지안습니다)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東亞日報社印刷部
電話光化門[illegible] 振替口座京城[illegible]

疲困치안는嗜好

森永ミルクチョコレート

미르크 쵸코레―트

一舞蹈하는美人이 舞踊의疲困을 祓키爲하야『쵸코레트』를嗜好함은 墨西哥의녯날事實이요

一個 十錢

森永製菓株式會社

花王石鹼

品質本位

經濟

의點으로는無類의廉價! 化學的으로는純良하고最上의品質, 香氣로운泡沫의皮膚觸感이無雙愉快함

東京 長瀨商會

列車時間略表

[illegible]

聯合國對獨抗議와 米統領의不參理由說明

米國大統領「쿨리지」氏는十三日에左와如한意見을發表하더라 米國의前獨逸皇帝及皇太子의歸國에對한聯合國側抗議에參加하거나或은獨逸帝政의復興을阻止코저하는方策에贊同하는것은米政府의傳統的政策이許치아니하는바인줄로信하노라(華盛頓十三日發)

正貨賠償支拂 審議

去十月二十四日獨逸은代用品及正貨로써賠償支拂할事를申出하얏는바賠償委員會는十三日右에關하야審議하기로하얏다더라(巴里十三日發)

支拂資源調查와 佛國의目的

―賠償을支拂키爲하야流用될만한獨逸의資源을調查하고更히某限度下에獨逸當側及財政上改革等을起草할任務가有한 佛國代表에就하야는先週에倫敦及華盛頓에對하야各々通牒되얏거니와此를要컨대佛國의目的은昨年에一旦支持하든佛國의政策을更히擴張된基礎上에鞏固히樹立코저함에在하더라(巴里十三日發)

獨逸現狀의危機와 英首相의坐視不可力說

倫敦政界의年中行事인新市長就任披露宴會席上에서英首相「볼드윈」氏는左와如히演說하얏더라(倫敦十一日發) 一英本國은各屬領과의關係를益々密接케하고자目下努力中인바印度의國勢가不振하는것은人類的關係가아니오全히政治經濟上의事情에基한것으로國防上의偏頗한諸方針은旣히樹立되얏는즉今後의軍備縮少에關하야는關係諸國과更히協調를遂코자思하노라 英國의外交는何方面에던지同情히行하는中인바獨逸의現狀은甚히寒心할바이라如斯現狀으로進行하면獨逸은支離滅裂할外에는他道가無한지라吾人은此를等閑看過키不能하며從하야當局者는米國을全歐會議에勸入하야歐羅巴問題의解決을早速히하고자大히腐心中이라

英議會解散奏請

首相「볼드윈」氏는至急議會를解散하도록皇帝에게奏請한旨를十三日下院에서發表하얏더라(倫敦十三日發)

三巡閱使新任命

十一日總統令으로써吳佩孚氏를直隷, 山東, 河南三省巡閱使로直隷軍務善後事宜督辦王承斌氏를同副使로 江蘇督軍齊燮元氏를江蘇, 安徽, 江西三省巡閱使로 湖北督軍蕭耀南氏를兩湖巡閱使로第十五師長彭壽莘氏를直隷軍務督辦으로任命하얏더라(北京十二日發)

張氏調停案拒絶 奉直問題依然解決困難

奉直和議問題에關하야曹錕氏는議者金朋文, 陸錦兩氏를奉天에派遣하야最後의調停案으로
一, 熱河, 察哈爾, 綏遠等의特別區域은奉天側에서防備에當할事
二, 該區의督軍은奉天軍에서任命할事
三, 張作霖氏가副總統에就任할事
等을提案하얏는데張氏는遂히右條件을容認치아니하얏슴으로兩氏는數日前北京에歸하얏다는데奉直問題는依然히解決이困難하게되얏다더라(奉天十四日發)

財政總長就任 王敏克氏

前中國銀行總裁王克敏氏는財政總長에任命되야十三日就任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反直派의新口實 金法證劵說盛行

王克敏氏의財政總長就任과共히金法案證劵說이盛傳하는데上海의輿論은王氏가曾히中佛銀行總理가되얏든事와本問題와의關係에鑑하야一切北京政府의同問題에關한魂膽을云爲하야反對하는中이며右派認은反直隷派에게更히曹錕反對의新口實을與하는것으로써注目되더라(上海十四日發)

又復土匪襲來 臨城驛附近

津浦線臨城驛附近에는十三日又復土匪가襲來하야富裕한村民十名을拉致하고巨額의身代金을要求하는中이라더라(北京十三日發)

警備司令部條令 全文三個條項으로成立

十四日閣議에서決定한東京警備司令部條令은全文三個條로成하얏는데其內容은大體左와如하더라(東京電)
一, 東京警備司令官은陸軍大將又는陸軍中將으로써하야東京橫濱及其附近의警備에任할事
一, 警備區域은東京, 橫濱兩市及接續한各郡部
一, 軍政及人事에關하야는陸軍大臣의命을受하며東京衛戍司令官의職務外지도行함

發令은十五日

―戒嚴令廢止에關한緊急勅令及東京警備司令部令은十四日樞密院及閣議에서共히通過決定되얏슴으로山本首相은十五日參內하야右三案을上奏, 裁可를得하야官報로公布할터이라더라(東京電)

幹部決定

―戒嚴令은十五日로爲限하고撤廢하기로十四日閣府本會議에서可決하얏스나東京及橫濱其他郡部는現在의狀態로戒嚴令을撤廢케되면不少한不安을感함으로政府에서는憲兵警察官을增員하는同時에戒嚴과全然其實質이同一한警備條令을制定한바該條令은帝都의復興과人心의安定을促하야撤廢될一般的의것인데本條令은十五日閣議에附議하야十六日에裁可가有하면公布即日로實施할豫定으로서司令官以下幕僚는左와如히決定하얏더라(東京電)

司令官	陸軍大將	山梨半造
參謀長	步兵大佐	秦眞次
參謀	步兵大尉	三宅俊雄
高級副官	步兵中佐	伊佐一男
副官	步兵大尉	米倉安雄
專屬副官	大尉	竹下義太郎
	大尉	幸田發

戒嚴撤廢와 田中陸相談

非常時特別한境遇에適用된戒嚴令을長久히布施하야두는것은그다지名譽스럽지못한일임으로可及的速히廢止할希望이든바一般狀況도全然平靜에歸하얏을뿐아니라撤廢後의治安維持에就하야는憲兵도以前의約四倍가되고警察官도四千人으로增加될터이며更히萬一의境遇에는近方으로부터即時軍隊도出動케할準備가되얏슴으로何等의念慮도無한터인바此點으로因하야多少의議論도有하얏스나何如間撤廢의議가可決되야十五日로써戒嚴令은茲에廢止되고十六日부터警備條例가實施케되리라云々(東京電)

閣議決定事項

十四日定例閣議는午前中에는樞密院會議를開催키爲하야午後一時부터首相官邸에서開會한後山本首相以下各相, 樺山書記官長, 松本法制局長官等이出席하야一定한地域을限하야戒嚴令中必要한規定을適用할件과廢止에關한緊急勅令二件을決定한後當面한重要政務에就하야協議하고午後二時半에散會하얏더라(東京電)
一, 一定한地域에戒嚴令中必要한規定을適用할件中改正에關한件
一, 右緊急勅令施行에關한件
一, 關東戒嚴司令部條令을廢止할件

補給金은 支拂決定

公債募集은全然中止된結果各地方의繼續事業에支障이生하게되얏슴으로此의對策으로緊急不得已한事業에對하야는補給金을支給하게되얏스며逐年繁劇은예外지補給金을受치아니하얏는지라並히此에對하야는一般會計로부터支辨할터이라더라(東京電)

本年度보다增額

―旣報各地에對하야交付할補給金은一千五百萬圓이나內地關東廳四百萬圓樺太廳百七十萬圓이나來年度는公債를中止하얏슴으로更히右補給金은前記本年度보다增額되리라더라(東京電)

關稅免除品 追加勅令公布

政府에서는罹災者에建築用材及生活必需品의關稅免除를實行하얏거니와現在아직도免除되지아니한建築材料道路改修用材建築用諸機械器具壁紙其他廿種의品目中免除를必要가有한者를過般來로大藏省에서調查中이든바近日震災復興에必要한建築及土木用材와機械器具生活必需品十五六種의關稅免除를追加하기로決定하야緊急勅令으로써十二日에公布하얏더라(東京)

內省의延期事業 豫算九百餘萬圓削減

大正十二年度內務省所管豫算에就하야는極力整理에努力한結果經常臨時兩部를通하야合計九百九十二萬三千五百三十三圓의削減을承認하얏는데左와如하더라
一, 治水事業費에서四百萬圓
一, 港灣改良費에서百八十二萬圓
一, 道路改良費에서二百十八萬九千九百四十八圓
一, 北海道拓殖費에서百二十萬二千圓
一, 營繕費에서二十四萬六千百三拾九圓
一, 臨時神社費에서六萬四千五百圓
等을該年度로延期한外에家計調查費에서三萬六百十六圓, 健康保險法實施準備費에서三十一萬四千五百八十三圓, 을減少하얏는데內務省豫算은當然한整理額을削減한一千百七十九萬〇八百五十一圓의基本豫算額에對하야財源의關係上可及的削減及延期에努力하는同時에地方利益에直接關係가有한者에就하야는財源이許하는대로復活을圖한結果一千九百二十六萬六千七百〇四圓의整理를行하기로하야經常部明年度豫算은九千八百六十四萬一千七百六十七圓이되얏는데其主要한費目을擧하면
一, 治水事業費二割五分即六百七十五萬六千二百六十六圓의減少
明年度豫算額은二千〇二十六萬八千八百圓
一, 又港灣改良費에서는二割五分二百二十二萬六千百五十一圓을削減하야百六十七萬八千四百圓의豫算額으로하얏스며更히道路改良費는明年度豫算額을二百七十五萬圓으로하고北海道拓殖費는百八十萬圓을削減하야其他各項目에亘하야經常部에서合計二十四萬六千二百十二圓과臨時部에서合計一千九百二十二萬六千七百四圓을削減하얏더라(東京電)

長官會議閉會

地方長官會議는十四日午後二時부터開會田中陸相山之內鐵相의訓示가有한後井上藏相의出席을待하야本間長野縣知事로부터地方財政整理는必要하나必要한地方債는募集을許可하기를希望한다는旨를陳述함에對하야藏相의說明이有하얏고午後五時內相의閉會辭로散會하얏더라(東京電)

非政友 合同運動其後

原內閣時代以來의宿題인非政友會團은最近政府에서普選의態度를表明함에依하야頗히促進되바就中憲政會의前代議士小寺, 富田, 湯淺氏等은最히此運動에熱心이며一方庚申俱樂部의山邑, 森下, 南氏等은此機會를勿失할것이라하야先般來로犬養, 大石兩老를始하야革新派의古島, 秋田兩氏는合同計劃을樹立치아니하면不可하다는理由로憲政會의解黨을要望하는바憲政會內의合同熱은院外者와院內의諸士에게依하야漸次氣勢가擧하는中인데其形式은
一, 加藤憲政會總裁를合同準備委員長으로하지아니하면不可하다는無關하다하야合同의第一着手에讓步하고
一, 合同準備委員을三派로부터選出할事
一, 合同이成立되기外지는國民黨이革新俱樂部, 庚申俱樂部의存在가同樣으로旣成團體로憲政會를承認할事
等條件外지漏하야昨今憲政會가革新俱樂部에對하야合同의適進을催促하는現狀인바此에對하야革新俱樂部에서도勿論三派合同에反對하는바아니나다만非政友合同의看板으로는旣成政黨의打破를標榜한關係上非히不便할뿐아니라特히多數民衆이旣成政黨에厭症이生한今日에다만非政友의結合을標語하는것은方法으로도不得策임으로萬若新團體를組織한다하면此야新政黨의組織下에主義政策을闡明한後同志를天下에求하는것이可하다는議論이有하야右是三派合同의計劃에는그다지熱이無한模樣으로서設或新政黨組織은非政友合同과同時에行하야도不可치아니할지나其意義만은廣且大한것으로서現在憲政會에서提唱하는多數的의結合과如한形式의合同計劃은容易히進捗되지못할듯하고未知이나右如何間에臨時議會의切迫과共히兩者有力者間의奔走는益々頻繁케되리라觀測되더라(東京電)

飛行合同問題 交涉進捗

從來群雄割據의狀態에在하든日本民間航空界는過般大震災에全部多大한打擊을受하얏는바最近此等各處에分離하야잇는飛行學校를全部合同하야所謂民間航空事業의復活速進을圖하자는議論이先般來로斯界에關係잇는諸氏間에提唱되는中인바伊藤敎次郞(伊藤飛行學校), 白戶榮吉(白戶飛行學校), 小栗常太郞(小栗飛行學校), 宗里悅二郞(津田沼飛行場), 水田嘉藤天(水田飛行學校)의五氏는十二日午前十一時帝國飛行協會에서最初의會合을開하고此에關한豫備的交涉을行하얏는바皆是萬難을排除하고合同을實現하자함에意見이一致되엿슴으로更히二十日安成飛行協會의高橋令朔治氏와福永飛行場의福永四郞氏도參加하야正式協議會를開하고具體案을決定할터인데大體로千葉縣下志津에在한陸軍航空學校의一隅를借受한後此處에中央飛行學校라고稱할만한民間航空練習所를設立할模樣인데來二十日會議에協議할合同案은左와如하더라
一, 合同資格
一, 出資形式
一, 維持方法
一, 飛行場
一, 創立方法
等이라더라(東京電)

外國保險會社의 震災에對한態度

外國保險會社에서는震災發生當時에直時本店으로부터訓電을受한結果約款에基하야支拂을行치아니함은勿論이나見舞金의形式으로도支出치아니하기로決定한것은旣報와如하거니와今番에加賀見會長은休暇를期會로更히其意嚮을質問하얏더니[illegible]外國會社도有하며又今後에도此에做할模樣이라더라(東京電)

綿布輸出減少

紡績聯合會調査에依한十一月上旬中綿布의輸出高는合計千二百五十二萬八千八百七十二碼三百五十二萬八千四百二十一圓으로前年同旬에比하야千二百二十六萬九千八百九十碼二百九十萬七千百六十六圓의減少이더라(大阪電)

棉花在荷減少

―紡績聯合會調査에依한十一月十日現在의阪神棉花在荷는神戸八萬七千六百十俵大阪五萬九千五百十五俵合計十四萬七千百二十五俵로서前에比하야神戸一萬三千六百六十二俵大阪三千四百三十七俵合計一萬七千〇九十九俵의減이더라(大阪電)

米穀輸出解禁

十三日閣議에서新財政總長王克敏氏提案의日本震災에依한對日米穀輸出解禁을取消하고更히旣히發布한護照에就하야도一個月을限하야有効로한다는旨를可決宣布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豆滿江橋實現

豆滿江架橋問題는數年來로日中間의懸案으로아직實現을見치못하고天圖輕便鐵道의一部가落成하얏스나此는軍事上至大한關係가有하다하야中國側에서는此橋의架設에依하야日本의軍事行動이敏速케될을疑慮하야撤廢를要求하얏는바最近에間島鈴木總領事代理領事로부터正式의交涉이有하야陶道尹은此를吉林省長에게交涉中이든바日本의軍事行動에는此架橋가그다지重要치아니하다하야三個年間의繼續事業으로天圖縣에서三萬圓을支出키로決定되얏다더라(哈爾賓)

明年豫算은 六分減平

總督府明年度豫算은旣報와如히十四日午後에總督官邸에서開催된臨時局部長會에서大體의決定을見하게되야今日부터財務局에서計算에奔忙中인바其內容에就하야는絕對로秘密에附하나例의補給金은昨年과如히一千五百萬圓內外의請求額을圖得하얏슴으로此에關한分配額은比較的容易히落着을告한模樣이나가장難[illegible]

領事會議準備

總督府에서滿洲에在住하는朝鮮人問題에關한滿洲各地領事及其他關係者를召集하야協議會를開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方今外事課에서는其準備에奔忙한中인바開會日字는來二十日부터三日間의豫定으로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每日午前十時부터開會할터이요開會日에는有吉總監도臨席하야參會者는各領事館의領事一人及民間關係者를合하야二十餘名이며討議할議案은朝鮮人保護及取締에關한事項이나今番에는事業經費等具體的案의討議外지는及치아니할터이오다만希望及意見交換에不過할터이더라

全道手形 交換의消長

近年의朝鮮財界는不振을繼續하는바過般關東震災의影響을受하야益々沈衰하고商業去來와如한도極히閑散하야如斯히朝鮮內主要地의手形交換高를見하면別로甚大치아니한狀態인데今에本年下半季의初頭로最近十月外지의全道交換高를見하면左와如하더라

	枚數(千枚)	金額(千圓)
七月	一六五	六八,二九四
八月	一五九	六三,一九四
九月	一五七	六三,三〇二
十月	一六六	六六,二八四

即震災後日本의手形交換과如히激減치아니하얏슬뿐아니라八月以後反히漸增의狀態를示하얏는데又此를昨年同期間과對照하면

十一年七月로九月外지	六四九千枚	二五一,〇八八千圓
十二年同上	六四七	二六〇,九七四
比較減	二	一〇,一二四

即交換高는一千萬圓餘即三分七厘의減少이나此를同期間의東京의九分三厘減少에比較하면震災의二割四分減大阪手形交換金額의影響을窺知할지라尙且前記와如히朝鮮內의手形交換高는九月로부터十月에至하는間에枚數金額共히擡頭의氣勢를示하얏는바繼續하야十一月과十二月은出穀時季로去來가繁忙한際이며特히昨今은米價가好勢로轉하야自然商勢도活氣를帶하겟슴으로手形交換高도此一兩年의例에[illegible]

京城在庫續減

京城商業會議所調査十月末在庫高는個數二萬二千七百九十個此評價額五十三萬八千百八十三圓인바前月末現在二萬七千六百四十九個六十四萬八千四百七十九圓에比較하면個數는四千八百五十六圓의各減退인바最近은每月約十九個評價額은十一萬二百九十買減退와一面金融梗塞으로在荷가減少함에因함인데月末現在品의詳細를見하면左와如하더라

倉庫別在庫高

	個數	評價額
商銀倉庫	三,六八七	一〇三,二一八
穀信倉庫	八,七四〇	二〇〇,四一七
通運倉庫	一,九五三	六〇,六九〇
金融倉庫	八,一八六	八八,八七一
大商倉庫	三四〇	二六,四五七
合計	二二,七九〇	五三八,一八三

品名月末在庫高

品名	個數	評價額
玄米	一,三五五	一三二,一一四
白米	二,〇九三	二六三,三四一
糯米	二,〇〇五	二二三,二二六
粗米	二三三	三,〇九〇
大麥	五八〇	四,〇六〇
小麥	一,〇四五	六,一五一
裸麥	四	四〇
大豆	七八	一,〇六六
小豆	四六	四八八
豆類	五	三八
雜穀	二,九三〇	四八,六六八
機械	四二	二,二七二

鮮鐵資金難

私設鮮鐵道株式會社의合倂報告總會는來月七日에東京에서開催할터이든바十月上旬東京에서開催할터이든바震災로因하야兩江拓林의總會는震災로因하야兩江拓林의全部를燒失한結果此의整理를完了하기에는相當한日時를要하야遲延되얏든바十二月七日에開催하기로決定하얏고社長以下新幹部도當日에發表할터인데罹災者에交涉成立을傳하는資金六百萬圓은其中에約四百五十萬圓을舊債償還에充用

	十一年	十二年	增減(▲)
京城	二四〇,四九九	一九九,三二五	▲四一,一七四
仁川	三六,八七三	三五,〇二〇	三,五三三
釜山	四四,四九九	四四,四三三	一,五五四
平壤	一七,七〇〇	一二,三五六	▲五,二四四
元山	四,三三五	五,三六〇	一,〇二五
大邱	一五,八三〇	九,八三三	▲五,九九七
計	三二〇,〇六八	二五〇,九七四	▲一〇,一二四

此를各地別로七月로十月에至하는四個月間의手形交換金額을比較하면京城平壤, 大邱等은減退이나仁川, 釜山, 元山은反히三百五十萬圓以上의增進을示하얏는데[illegible]

官鹽生產額 五割五分減

本年度의官營製鹽事業은西鮮地方의大海嘯로廣梁灣鹽田이非常한被害를蒙하야一時는製鹽不能에陷한結果各鹽田共히豫想生產額에對하야約五割의減收인바各鹽田別로示하면左와如하더라(單位千斤)

	豫定	當期生產	比例
廣梁灣	三六,一〇〇	一三,五六〇	三割五分
德洞	一二,〇〇〇	二,一四〇	一割四分
貴城	一二,六〇〇	三,一三〇	四割四分
朱安	九,六〇〇	四,四五〇	四割六分
同新	九,六〇〇	四,五〇〇	四割五分
南村	六,〇〇〇	四,九九〇	八割九分
合計	三三,七二〇	八,六二三	五割五分

鑛界依然不況

最近의朝鮮鑛業界는一般財界의不況으로非常히沈衰한中인바大正六, 七年頃에比하면鑛區가半減하얏스며金銀鑛以外의他一切의鑛區는約一割二百個所이나前年度에比하야減少하얏고十一年度에는砂金其他를合하야實際採掘者는約一割二百個所에過치못하며此中에도成北의石炭을除外하면極히小規模의것으로從하야鑛産額도大正七年中의三千萬圓이十年度에는千五百萬圓으로半減하고今年은更히減少될豫想이며其原因은主로資金難과生産物의市價暴落等에因함인바此等鑛業의現在의情況으로觀察하면當分間은鑛業狀態도不良하야現在와如한狀態로서는此에在하며此關係로市價에何等의變動이無하야明治四十三年이래로同樣으로推移하는不況을脫하기困難한狀態이라더라

日本酒	一〇八,一三	[illegible]
食料品	二三,一〇	[illegible]
飮料水	七四七	四八八六
硝子·皁	三四七	三四七
絹織物	七六	一六三八
綿織物	三三八	三一八五六
毛織物	一三七	二九三二五
洋酒	七八	一〇一〇〇
紙類	九四	八九四〇八
金屬製品	三五四	一三九二九
藥物	三六一	六四六七
染料	二二	三八八四
燐寸	四五	一九五四
砂糖	七七〇	一二二〇〇
衣類	一二〇	一九五
石油	二〇	三二二四
雜品	五一八	六六二
合計	三二,七九〇	四七〇七

東拓貸付增加

東拓朝鮮內支店十月中貸出高는定期償附一千三百二萬二千五百十三圓年賦貸付二千九百三十七萬一千八百八十五圓合計四千二百七十九萬四千三百九十八圓인바此를九月末現在貸付高에對比하면二十四萬一千四百九十四圓의增加이라더라

仁川電話機改良

多年懸案이든仁川郵便局의電話交換方式變更工事는正式으로竣成되야新機械로移轉할터이라더라

郵局分掌會議

遞信局에서는會計事務打合協議를爲하야各分掌郵便局會計課長을招集하야今十六日부터三日間의豫定으로同局會議室에서開催한다더라

渭原郵便局移轉

平安北道渭原郵便局은渭山面高洞에移轉코자計劃中이든바本月十六日부터移轉하야事務를開始할터이라더라

辭令

▲總督府屬 佐々木三郞
兼任同府事務官局事務官(七等)(東京電)

消息

●共濟會事務所移轉 卿業共進會殘務處理事務所는昨十五日부터市內永樂町商品陳列館內에移轉하얏더라
▲司削幸太郞氏(鐵道部長)十四日夜自東京歸任
▲李鉉輔氏(日新商會業務理事)滯京中이든바再昨日晋州에

横說竪說

▲政務總監과財務局長이東京에서大活動을繼續한結果朝鮮豫算에關한補給金과事業公債問題는有利히解決되얏다고『大成功』을한듯이떠든다▲그러나事實에들어가서는二千萬圓이削減되야所謂『中止하야서는困難하다』는繼續事業도殆히全部를中止하게되얏다한다무엇이成功인지떠드는사람의意思를알수업다▲豫算關係가如何히되든지敎育施設計劃에는何等의變更이업스리라고學務局長은매우得意인貌樣이라든가그러나當初에敎育施設을爲하야豫算에計上한것이얼마나되여야中止도하고延期도하지▲三面一校라는寺內式武斷政治時代에樹立한方針을豫定한年度에일지도못하게民衆의게등치를밀니가면서鄭重히遂成코此가所謂『文化政治』의所賜인듯이宣傳을하고更히何等의新方針도樹立치못하면서敎育의振興産業의發達이朝鮮統治의二大眼目이니엇지니하는當局者의얼골이빤히처어다보이는듯하다

商況

◉朝鮮銀行券(十四日)

發行高	六八,九二四	一〇,一二四
正貨準備	三六,一〇〇	一,六三八
保證準備	三二,八二四	二六七八

◉日銀帳尻(十三日)

發行高	一二八,八〇七	[illegible]
正貨準備	一〇五,八六五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illegible]
貸出高	四六,七八〇	[illegible]

◉京城手形交換(十五日)

枚數	三三八七	
金額	一,三六〇,六九三	

◉日本金利(十四日)

	東京	大阪
金利	二錢一厘	二錢一厘
當座貸越	二錢	二錢
日歩	[illegible]	[illegible]

外國經濟電報(十五日發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市場의銀塊時勢는三十二片六分之五로前電보다二片下하고[illegible]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는[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市場은前電에比하야[illegible]

大阪株式 十五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紡績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illegible]

株式市場 大新反騰 依然한閑散

十五日의京取市場은大新阪地의小堅을入하야期硬變方共히傍觀的人氣로去來가少하고小口買合으로回復的底硬하야前場은終하얏는데大新은七十五圓六十錢에寄하야七十六圓에止하야反騰하얏스며[illegible]

京株賣買價(十五日)

[illegible]

短期取引

甲部	三百六十枚
乙部	一千三百三十枚

京株賣買高

十五日의京取市場의賣買成立高는如左하더라

短期清算事務

[illegible]

綿絲布標準價格

[illegible]

大阪三品 十五日前場

[illegible]

大阪期米 十五日前場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買氣沖天

[illegible]

各地穀物市場 十五日前場引時勢

[illegible]

仁川期米 商況

昨日阪地步調는前場初付二回暴落節九十錢을傳하엿스되當地軟軍想減收로七十丁暴騰인三十二圓의活動으로四十錢外지軟步되더니五十錢에始하엿스나二節以後는阪地三節九十四錢이라五十五節々低移로七節에는二回落으로割錢에反하야五十錢臺에서相支하下八節에는又二回落七十[illegible]

▲第一節 當中兩限은不成에
▲第二節 當中兩限은亦不成에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張最根

▲第三節 當中兩限은[illegible]
▲第四節 當中兩限은不成에
▲第六節 當中은不成에先은二[illegible]

初付	二十五圓七十錢
止値	二十六圓六十八錢
高値	二十六圓六十八錢
低値	二十五圓七十錢

二節	二十六圓六十一錢
三節	二十六圓五十四錢
四節	二十六圓七十一錢
五節	二十六圓八十三錢
六節	二十六圓五十錢
七節	二十六圓六十八錢

同日後場
[illegible]

天氣 大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十一月十五日前場 又現新高價

今朝天候는阪仁共司快晴에各地氣配는다强한便으로報하엿더라 一錢夕步步有하고止低는少高하는步調로前止보다五文高하게 八十三錢이오後場初付는亦少高 一圓八十九錢이라當地亦此에伴하야 二十五圓五十錢에始한바阪地二 圓〇一錢인高價로報하엿슴으로 當地亦六十五錢에反하야場을止한後各地氣勢는다强한便으로報하엿고阪地亦强硬한步調이라함 昨止보다八文高價임으로硬一派의買人氣旺盛하야昨止보다五 高步인二十五圓七十錢으로初付되엿더라

先限은七十九錢에始하야一文을 低落際阪地三節은二圓三十丁으로始價를最低로步々長足의勢로

學校煖爐는問題
危險하고非衛生的이다
소학교와보통학교난로는 떼치카로개량할계획이다
但今年은實行不能이라고

작년이때에 일본인소학교(小學校)란로에서 학생이다수죽은뒤로 일반학부형들과 관계당국자들은 란로의개선방법에 대하야여러가지로 의론이잇든중 최근에 다시 이문데가생기어 일부에서는란로를폐지하자는의론도잇는데이에대하야 가등위생과댱(加藤衛生課長)의의견을듯건대 란로가학생들에게위험하다하면그부근에그물(網)가튼것만설비하면그만이나원래란로는비위생뎍(非衛生的)이되야온도의고하가심할뿐만아니라 석탄가루등은 지가비상히 만케되야 어린아동에게 직접간접으로 해를씌치는터임으로 엇지하얏든지 개선하기는하여야할터이나중긔란로나던귀란로는경비가과다하야도모지 가망이업는일이요 한가지방법은떼치카-라는로서아식(露西亞式)란방장치를하면엇더할가하고 방금비교연구중이라하며 만일이것을소학교에사용하게되면 따라서 보통학교에도 설비하는것이 조흘것이라는데 개선한다하더라도 금년안으로는 불가능이라더라

加州在留同胞로부터 西鮮罹災同胞에게
미화백여원의동정금

미국가주(米國加州)로쏘안젤쓰에잇는 우리동포들은 금년여름 서선디방의 참혹한수재상황을듯고 대한인로동사회(大韓人勞働社會)의 주최로 문을돌리는등 여러가지로 수해구제금을 모집하야 ... 동정금을보내엿는데 그 씨명과 금익은 여좌하더라

金十圓式 정홍경, 박재형, 金五圓式 홍종원, 황성렵, 송헌주, 김연, 金二圓式 홍치범, 리살음, 김영회, 김용성, 정지영, 金二圓式 리병연, 리긔주, 김진경, 정인영, 정부인, 정지영, 김용수, 권종흡, 부인, 정구만, 윤필권, 권종흡, 황덕수, 송창옥, 조성환, 리원희, 金貳圓五拾錢式 권태연, 金一圓五拾錢式 림지영, 고영근, 안상학, 金一圓式 리순복, 김승진, 김성백, 김하수, 김병옥, 김진목, 최조섭, 안석증, 정덕근, 정국서, 윤병희, 송철, 양금성, 金五拾錢式 김규, 김조섭, 윤부인, 윤문조, 황명선, 조긔호, 홍식, 권순호, 서여순 合計米貨壹百四圓也

명은 여좌하더라 收金委員 宋高鶴, 李秉億 鄭知永, 鄭圭萬, 許弘植

수금위원과의연금낸이의씨 일이라하겟더라

京城에初雪
비에석기여서

재작십사일 하오한시 십분경에 경성에는 몃분동안 비에석기어서 첫눈이왓는데 작년보다 새가늣고 예년에비하면 이일간 이일다고 경성측후소원은 말하

公州에初雪
지난십삼일에

충남공주(忠南公州)에는 련일 비가 오락가락하야 일긔가불순하다함은 별보와 갓거니와지난 십삼일밤에 눈이조금식 날리엿는데 디형이나즌곳은 다녹아버리엿스나 놉흔산은 적설되엿더라(공주)

가오락가락하야 농가의곤난이막심한중 지난십일일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십삼일까지도 쯘치지안코오락가락하며십이일오후네시경부터 졸연히 폭풍이이러나며 뢰성번개가잇서 일긔가매우험악하야 십삼일 오후륙시경까지계속한후비로소폭풍이진뎡되엿다더라(공주)

平壤에初雪
작년보다는늣다

평양(平壤)에는지난십사일오전구시십분부터 첫눈(初雪)이 오기를 시작하야 동오후네시에야그치엇는데 대개평양디방에 만히온모양이요 작년보다 열일흘이 늣다더라(평양)

本町大火는放火
범인이필경자백하엿다
원인은보험금에욕심나

지난팔일에본뎡(本町)이뎡목에 서 이러난화재의 출화되는곳은 한바와가치 그곳이번디 소목장 고뎐송장(高田松藏)의집인대소관본뎡서에서는 그자가 스사로 자긔집에 불을노흔혐의가 잇서 그동안엄중한취조를 한결과 사실이 거의명백하게드러나 드 듸여 작일오전에 서류와함께방 화범으로 경성디방법원검사국 (檢事局)으로압송하얏는데 이직 수색상 필요가잇다하야 상세한 내용은 발표할수업다하며공모 자는업는듯하다는데 그자는원 래생활이곤난한후에 부채까지 적지아니하나 돈은나올데가업 슴으로 삼천원에거려노흔 보험 금(保險金)이나차저내일가하고 방화한것이분하다더라

날벼에 김희영의 모친이되는김성녀(金姓女)(六六)가 전신에 화상을밧아목하수창동(需昌洞)광제병원(廣濟病院)에입원치료중이나 팔십에갓갑은 로인의일이나 생명이위독하다더라

永樂町小火
원인은실화

작십오일하오령시경에 시내영락뎡(永樂町)이뎡목 칠십칠번디사긔장사 좌등초차랑(佐藤礎次郞)의 창고에서 불이나서 부근주민의 가슴을 놀내이엇스나 소방대의 활동으로 창고의일부만타고 즉시진화되얏는데 손해는오십원가량이요 원인은 아즉조사중이나 바화는안인듯 하다더라

電車가또傷人
일개월치료의중상을당하여

양주군 시둔면 상계리(楊州郡柴屯面上溪里)윤석원(尹錫元)(三二)은재작일오후세시삼십분경에 배추를실은수레를끌고 종로(鍾路)사뎡목 사십팔번디 압흐로 지나가다가 동대문을떠나의주통으로가는 팔십칠호 뎐차에치어 수레도다소간 쌔여지고손가락이 부러지는 동시에손등파렬에 타박상을당하고 즉시경성병원에가서 응급치료를 하얏는대 전치되기까지는 일개월가량이나 걸릴터이라더라

碧潼地方의不安
통의부군이온다고

대한통의부군(大韓統義府軍)의소대당으로잇는 김래복(金來馥)과 그외리삼현(李三賢)문학빈(文學彬)한룡숙(韓龍淑)등은지난달하순에 각々십여명의 부하를다리고 평북벽동군(平北碧潼郡)의대안인 관뎐현(寬甸縣)석주자(石柱子)대황구(大荒溝)대피구(大皮溝)등디로배회하며결빙된에 조선안에 침입하랴고 계획한다는보도가잇는데 한룡숙은 요사이 대안(對岸)추과령(秋果嶺)에리주한 최모(崔某)밤에서 그곳순경주재소의 순관(巡官)으로잇는 왕모(王某)를초대하야 잔채를베풀고 이후차긔행동에 대하야 얼마동안모든것을 묵인하여달나고 간청하엿다는 풍설이잇는데 좌우간요사이 벽동부근에는 매우불온한형세가 잇는모양이라더라

過飮하고
길가에서죽어

재작십사일 하오팔시경에 시내안국동(安國洞)일백칠십오번디 부근길가에 피에저즌시톄가잇다 하는급보를듯고 소관종로서에서 즉시검시를한결과 그는주소와 직업을알수업는 박완규(朴完奎)(二O)라는사람으로술을만히마시고 심장마비로 죽어서 입으로피가흐른것이 판명되야 즉시시톄는 경성부령에인계하얏다더라

強盜二名또逮捕
경긔도형사과에서도합여섯명을잡엇는대그중
李某는三代强盜의名門

얼마전부터 경긔도경찰부 형사과에서는 활동을개시하야 룡산부근에서 강도두명을 데포하야검사국으로 넘기고 그후다시시내부근에서 강도두명을 데포하얏스며 오히려활동을 계속한결과 지난십삼일오후 다섯시경에는 김포군양동면 목동리(金浦郡陽東面木東里)에서 역시두명의강도를데포하엿는데 이로써 형사과에서는 도합여섯명의 강도를데포한세음이다 그강도단은 도합일곱명으로 아직한명만 잡지못하엿다더라

平壤府內에强盜
세명의강도단이일본인을협박

지난십이일오전네시경평양부신양리(平壤府新陽里)오번디소차(小倉)이란일본인의집에는식도들가진강도세명이 침입하야 주인을협박하며 구라한후 현금오십여원을 빼아서가지고 도망하얏다는데 진긔세명은 조선청년인듯하다하며평양경찰서에서는범인수색에진력하는중이라더라(평양)

平壤勞盟會幹部
陳秉基等의公判
검사는개팔월과일년구형

평양(平壤)조선로동동맹회(朝鮮勞働同盟會)간부(幹部)진병긔(陳秉基)안영기(安永基)김긔황(金基璜)등 세명에대한 공판은 지난십사일오전열한시경 평양디방법원 데일호법뎡에서 열니게되엿다 궁내(宮內)재판장리에 진행되야 피고들이현사회제도를 뒤주하고자그네의 리상을 실현하기위하야 본년구월이십팔일과 동삼십일에 진긔동맹회회관에서 다수한로동자가 모힌곳에서 내용이과격한혁명가를(革命歌)합창(合唱)하야 치안을방해하엿다는 권호사실의심문이잇슨후오호세시에 일으러 잠간휴식하얏다가동네시에 다시개뎡하얏는데 원고(原告)검사는피고진병긔를징역일년에 김긔황안영긔 두명은 각각팔개월에처하야달나는론고가잇섯다 다음에변호사(辯護士) ... 덕이무엇인가하고 은 모다피고들의주소와 직업년령등을들은뒤에로동동맹회의목적이 무엇인가

統義府員銃殺됨
군자모집중일경관에게

남북만주를횡행하는조선독립을보거창지국(東亞日報居昌支局)의부조선일보거창지국(朝鮮日報居昌支局)의후원으로열닌 데일회경남축구대회(第一回慶南蹴球大會)는 십일월십일일에거창운동장(居昌運動場)에서거행하엿는데 ...

복덕으로한통의부(統義府)의부원이라하는김덕원(金德源)리려준(李如濬)등위의는지난팔월새벽에안봉선(安奉線)무순(撫順)덕거장부근모가둔(鮑家屯)촌에가서 군자금을모집하다가 일본인경관을맛나 맛춤내 리여춘은총살되고마랏다더라(무순)

慶南의蹴球大會
우승은젼부거창서차지

경남거창군(慶南居昌郡)창남학술강습회(昌南學術講習會)주최거창청년회(居昌靑年會)동아일보거창지국(東亞日報居昌支局)의후원으로열닌 데일회경남축구대회(第一回慶南蹴球大會)는 십일월십일일에거창운동장(居昌運動場)에서거행하엿는데 운동수(尹秉洙)씨의개회사로써 운동이시작되엿는대 그승부는 여좌하엿더라(〇勝)

少年團一回豫選
〇飛虎團×覇王團 〇迅速團×東星團 〇龍虎團×昌南團

第二回豫選戰
〇飛虎團×龍虎團 迅速團不戰勝

青年團第一回豫選
〇居昌靑年團×昌南가나다團
〇居昌靑年團×山淸運動團不戰勝

青年團二回豫選
〇居昌靑年團×山淸運動團

小年團決勝戰
〇迅速團×飛虎團

青年團決勝戰
〇居昌靑年團×居昌開闢團

이상과가치소년단은거창신속단(居昌迅速團)에게천단은거창청년단(居昌靑年團)에게로우승의명예가도라갓더라(거창)

洪原有志의
水火災同情
삼백여원을모와

함남홍원군(咸南洪原郡)에서는 동군유지의발긔로 수화재동정회(水火災同情會)를조직하고 각면으로 동정금을모집한바 총계삼백사십여원의 동정금을모아엇슴으로 동정금을 보내엿는데 의연자의 씨명은 여좌하더라

金十圓也 金禹信 (이하 의연자 명단)

暴風과雨雹
일주야를계속

목포디방(木浦地方)에는지난십이일오후다섯시쯤되야 폭풍우가잇섯스며 겸하야우박이 쏘다지기시작하며 폭풍과 우박은일주야를 계속하엿는데 농작물의피해와건물(建物)의손해가다대하더라(목포)

各地天候不順
폭풍우와눈과우박이
남북각디방에잇섯다

安城雨雹降雪
농작손해불소

경긔도안성(京畿道安城)디방에 는 지난십이일오후십시경에 맹렬한바람이불어 오는동시에비와우박이 쏘다저서 농작물에약간의손해가잇섯고 그이튼날 십삼일밤에는 눈이와서 벼안간에 은세계를이루엇는데 여러날동안 비가오고눈까지와서 추수하기에 매우곤난할뿐아니라 바닥에 널녀잇는벼엔는 싹이날듯하더라(안성)

公州에暴風雨
계속하야왕래

됴칭이진동하엿다고 금년추수에 비 공주디방에서는

獨立團과衝突中
경관의무리한명령으로
애매한농민이부상하여

평북초산(平北楚山)디방에는 독립단의 왕래가 빈번하다함은 루차 보도하얏거니와 지난십일 오후칠시경에 본군 동면화풍동 피목리(本郡東面化豐洞皮木里) 김룡석(金龍碩)의집 압출은 길까에서 륙칠명의 독립단으로 보히는 수색대와 충돌되여 약한시간이나 교전하는등 피차백여발의 탄환을사격하야 일시에소동을 일으킨후 ... 더안흘것던농민김길석(金吉碩)이 부상하야 본군자혜의원에입원하야 응급치료중 생명에는관계가업다더라(초산)

또獨立團
무상한오명이침입

지나간 십삼일오후 열한시경에 평북초산군 초산면성서동(平北楚山郡楚山面城西洞)에잇는 원봉(安元奉)의 셰사람의집에 무장한독립단다섯명이 일대이드러와서 현금삼십원의 군자금을 강탈하야가지고 현적을감추엇슴으로 소관경찰서에서는 범인수색으로 대소동을 이르키엇다더라(초산)

社稷洞에 火災騷動
두집다섯간소실
사람한명중상됨

작십오일 오전여덟시십삼분에 시내사직동(社稷洞)륙십구번디김희영(金熙永)의집에서 불이나서소방대의 출동으로 약삼십분만에 진화되얏는데 원인은부엌에서 불길이 올나서 실화된모양이며 손해는김희영의 집두간과 리웃 륙십팔번디 림영(林永)의집 세간이 소실되얏스며불이 방구가구등을제조하는 목공과 ...

이번종두에 빠진이는
엇더케하든지 석너어야한다

이번의종두로말하면 종두(種痘)에 의지하야 우두를너어야할사람이 너치아니하면 일종의벌을 어긴사람과가치 과료(科料)나 구류(拘留)에 처하게됨으로 그동안 부득이한일로서 빠진사람이나 혹착한가운데 너치못하고 돌아간사람 너엇더라도 불완전한사람은 각각 그구역의 검진장소(檢診場所)에가서 엇지하든지 반듯이너어야하며 그도저 도 못할사람은 다른보통의사에게서라도 반듯이 너어야하는데 이런경우에는 검진까지 바든뒤에 완전하게우두를 너엇다는 상세한의사의 증명서를맛터 경성부위생과(衛生課)에 데출하여야한다더라

화셤에登樓하야 豪遊끗헤飮毒
주인에게쪼겨나서

시내신뎡(新町)약송루(若松樓)에 고용되야잇든 젼라남도려수군려수면(全南麗水郡麗水面西町)에 원적을둔김말봉(金末奉)(二三)은 지난십삼일에 주인에게 내여쫏기고나서 화김에 그날밤에 동디일월루(日月樓)에올나가 창기를다리고자다가 재작십사일 아츰네시경에 뒤간에가서 자살을하고자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정안사람이발견하고 즉시응급수당을 베푸럿스나 마츰내 얼마아니하야절명되얏다더라

밥벌이리 공부로리

青年會實業部
목공과, 철공과, 인쇄과의
세분과와사진의특별부
십사년간을계속하엿다

「조선사람조선것」이라는말이 입에서 입으로 곳々이선뎐은되엿스나 과연우리의손으로 우리의생활상에 필요한물건을 지어내는것이 멧々가지나 되겟는가 오늘까지 업는것은 하는수업거니와 압흐로 새조선의새일군을 지어내는 시내 각실업학교의 상황을 한번들너보는것도 늣김이깁허가는 첫겨울의 첫소식으로 가장 덕협한일일가한다

◇먼저 들린곳은 중앙긔독교청년회실업부이니 본관뒤로 놉히소슨벽돌이층집이곳맛치소리틈소리속에해를맛고날을보내는실업부실습장이다 실업부안에는 문과목공과(木工科)와 모든큰긔계의부속품케조와수선을하는텰공과(鐵工科)와언문한문영문의인쇄술을배호는인쇄과(印刷科)의세과가잇서서 모든학생은 목공과공과 인쇄과오인

십사년전

래년전 래칠월에창설하야 이십유긔독교청년회의 북미(北米)위원회에서매년 십관원식의보조가오 기로다시이개년가량을 실습연구를 더하면 우선이학교의교사가될 수잇스며 그외에는 대개디방에가서교사혹은개업을하게되야대개 금년부터 는 미국의 귀부졸업생의 성적표를보면

		自營	敎員	就職
木工科	二七	一三	二三	
鐵工科	六	七	二	
印刷科	一	二	八	
寫眞科	三二	二	六	

과의입학금은전부이원이요월사금은삼원이라는데 보통학교 졸업도의 학생에게 입학을허하야목공 텰공두과는 이개년인쇄과는일개년에 졸업증서를 주기로되얏는데 학생들의 손으로케조하는책상, 양복장, 의자등목공품과 적은긔계와 큰긔계의부속품등을케조한 텰공품들이며 인쇄부에서 바더내는 여러가지인쇄물의수입으로 이케로부터는 놈히독립하야 유지하야 갈수가잇서나

소년들이

마치와 대패로 동모를삼아 해빗흥한 공장속에서썩과열정으로실습하는광경을보고는누구나다공경하는뜻이 날것이니 그들이야 말로장래의 새조선의 주추와기둥이될 큰일군이안일가 싶으로 오늘까지의 졸업생의 성적표를보면 시내에서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목공장사진관텰공장에서쓰는사람은 거의다 이곳출신인모양이며 인쇄소에자영이 업는것은자본이만히드는 까닭이라한다

郵便物을配達치안코 爲替를橫領消費
선천우편국의배달부가

평북선천우편국배달부최의형이 가우편물을배달치아니하고 또위데증금을횡령하엿다는 불상사는일즉이 보도한바어니와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소개하면 배달부최의형은 금년륙월 삼십일에 달부로임명되야 우금 사오개월간에 계속하야 디방인에게하야 엇더케될심한관계가잇슴도생각지아니하고 매양태만하야 이래멧달동안에서 와외촌에 배달할우편물편지혹신문잡지기타여러가지를 페집에운회하야 본인의게뎐달치아니한것이 한위데를 절취하야 그외숙모리하고 보내는 칠십원의돈을상 ... 창성군청산면리만련(昌城郡靑山面李萬鍊)이라는사람이선천군선천면리가동사는 그형리만 형의게자부의 납폐시에보용 하라고 보내는 칠십원의돈을상 위데를 절취하야 그외숙모리 정녀의 일홈으로 횡령소비한 사실을 경관의 엄중한심문에 자백하엿다하야 당디 경찰서에서는 그자를일건서류와 가치불 일간검사국으로압송하얏는데 이 에대하야 우편물을 배달치아니 한 영향으로 수신인된디방인의 게는 엇더한손실이 잇슬는지추 측지못하리라고 우편국 책임자 의 갈증상무성의 한것을일반은 비난하기마지아니한다는데

부지기수

이며그중에도 다른드지 국원을보샤 천원지국에는 세상에 대하야 미안함을 동우편국 에서는 책임상 는재조여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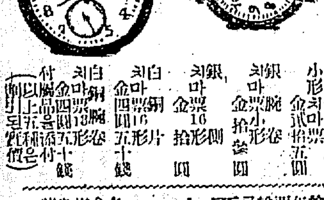
寢具寄附學藝會
신철실팔일에

일본인편 경성부이런회(京城婦人聯合會)주최와 대판조일신문사(大阪朝日新聞社)경성지국 후원으로동경디방진화재를당한사람의게침구를보내기위하야 십칠일과십팔일의량일간 오후한시부터경성공회당(公會堂)에서 녀학교유치원의회연예회를열게되는데 회비는보통오십전학생삼십전이오녀자에한한다더라

◇휴지통

▲어떤아이가자랑하는말이우리형님은정거장사이지 붓는긔차라도 당장에데거를 식혀라면 식히는재조가 잇다고 하엿다▲그말을들은 그애의동모가『밋친놈 거짓말마라』하고 책망을한즉 그애대답이 우리형님은 긔차운뎐수라고 하엿다는 이야기가잇다▲그런데긔차운뎐수도아니요달은특별한재조도업스면서도 렬차를뎡지식힌 사람이잇스니 그는박천사는 김도식이란사람이다▲십사일천오경에 경의선맹중리와 령미 사이에서 데이십오호의 북행렬차를 뎡거식혓는데 그가선로한복판을 거침업시 걸어가는바람에 운면수가할수업시 뎡거는 하여노코 사를하여본즉 그의한가지 재조는 무슨소리던지 알어듯지못하는재조엿다나

開業拾週年紀念自祝



K18 十八金腕卷 小形 金貳拾五圓
銀側 小形 腕卷 金拾參圓
銀側 16形 金拾圓
白銅 16形 片側 金五圓十錢
白銅 18形 金四圓五十錢
附屬品付以上五錢以上는割引

價格大割引 一千個 特別賣
開業以來一般의愛顧에對하야十週年紀念으로大正十二年十一月十六日부터十二月 地方注文도大歡迎
大正十二年十一月一日
各種時計眼鏡貴金屬寶石 附屬品修繕
京城府鍾路二丁目 主 申 文 錫
商信鍾堂時計舖
振替京城一八九二番 電話光化門一八六番

釘本洋樂器店內
電解工業所出張所
特價金拾五圓也

京城本町二丁目三九
電話本局一二八三番

李王家御嘉納品
各種病院에使用하는電氣治療器
(이하 광고문)

昌信商會
金銀白金美術
京城南大門通

綿打機械大割引
機械의堅固와打力의倍多는近間模倣的流行品이比類가아니라本所의創立十三年間紀念하야信用을廣佈하기爲하야二個月限하고特別廉價로放賣하오며及付屬品도(홈니)廉價이오니勿失此期하시옵
製造元 大阪 上海
主任 黃利善
製造本所

技術養成員募集
廣告
一、染料各色販賣法 一、入學資格은 ... 一、定員은男女六十人 一、期間은 ... 京城府 ...

元豐號
直輸入精製와 正價都散賣는
營業科目 毛物各種 콩기各種
地方注文에는代金引換함

新城旅館
本旅館은 ... 營業하오니 ... 京城府 ...

百濟病院
入院隨意 最新式의X光線設備
電話一六二〇番

여러분ㅣ本社의製品인
삼성표 삼각산표 광목은
여러분의옷감이올시다
朝鮮사람經營
京城府竝木町
京城紡織株式會社
振替京城一〇三八一番

독갑이 (三)

千里駒譯

구레손양은 얌전한태도로 독아나니 올시다 그런것이아니라 선생님이 옵버가 뵈온지가발서 오랫서요 여러번 뵈왓서요 뵈올때마다 매우엄숙하신줄알고 좀가은것은 아니시는 줄만 아럿세요 그런케도 변하실줄은 꿈밧기올시다」

「나붙어되셔 보것는가요」

「어드셔 뵈와다면 무슨 큰관계가 잇슴닛가」

「상관이야물론잇고말고가 잇슴닛가」

「상관될 까닭을 모르겟는데요」

언어수작이 이만치 진보가되매 백탐뎡은 흥이나서 첫번 하기를 마지아니하야 독개비라는 도적을 잡엇드라도 이보다더ㅡ조아할수는 업스리라 구레손양은 그런 묘리집에서 맛낫것마는 상당한 친구로 대접을하야 사건을의론하라고 맛낫던것이 아니라(일부러) 종용무라고 무도회에 온것과 다름이 업섯다

그러나 어대가 과붓다시가저오매 구레손양은 차를 드르면서 우주를만히 니르라 적게뜨르라 무러서 면의정미대로 우유와 사탕을 덕당하다서 보로 한잔식들고 안진뒤에 그곳으로 맛나자든 이야기를 쓰내엿다

「우리 오라버니가 한분잇는데 요사이 큰걱정이 잇서요 무슨걱정인지 그내용은 아즉 알수가 업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도아주십시사하고 약조를 한것이야요」

그때에 백탐뎡은 정숙히 안저 드르면서 쓸데업는 이야기 듯는듯한 귀한색이 업슴으로 구레손양은 귀운이 새로워지며 말을이어 「처음부터 이야기를 쓰내지요 말을 아모또록 간단하게 하겟서요 우리남매는 일즉이 부모를 일코 소위시라는 어른이 우리를 양육하엿슴니다」

탐뎡이 말을 가로차서 「은행가 말슴이요 나도 아지요」하엿더니 구레손양은 밤그레 우스며 「여러해전에 선생님을 그집에서 뵈왓서요 그때 조고만 계집애를 보신생각은 아니나시겟지요」하엿다 백탐뎡이 그소리를 듯고 그때 어여쁜 아이를본 생각이 난다고 말을 쓰내랴하엿더니 구레손양이 손을드러 말을 막으며

「선생님 아시는바와가치 소일삼틸을 하여왓지요 우리가 과히 그후로 우리남매는 질불령하고 우리남금내가 이야기하려는 조금이 여괴잇슴니다 우리 오라바가 일을 아니하고도 사려갈수가 잇기때문에 그생각이 자연히 안일한데로 낫던모양이야요 우리 오라바가 들어가는 세상에 또업시 착한사람이지마는 무슨욕망이 업섯습니다 농학교를 마친뒤에 대학교에 다니기를 하엿스나 겨우 이년급에서 고만두엇서요 그것이 발서 사년전일인데 그후로는 아모것도 한일이 업고 찰놈 고만 다녀습니다 나는 걱정은 하엿스나 반데는 아니하여 왓습지요 나는 언제던지 조흔사업을 하려니하고 밋은외탐으로 자기가 무슨긔정을 안코 잘지내는동안에는 아모말도 하지안코 자기마음대로 하게 두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어린의 동생이 [illegible] 해라 커리해라 하는일이 온당치 못하다고 넉기어왓서요」하고 우엇다 탐뎡은 구레손양과 가튼

藥令期迫到와 藥品改善할일

大邱漢藥組取締梁淳氏談

大邱의唯一한特色을자랑하는 藥令市는 漸々迫到한다 압흐로 一個月을못남기고열닐 이令市는 八道사람 八道藥品의 輻湊하는 盛況을일울것이다 이에對하야 漢藥商組合取締梁淳氏의말을들은즉 如左하더라

『令市는 去番實報大邱紹介號에서 大略紹介를바든일이잇거니와 參考를삼아 그由來를 詳陳할外합니다 距今二百七十一年前李朝孝宗朝時에

政府의法令

으로特産藥材를進貢키爲하야 全國에三處의藥市를設하엿는바 法令으로된藥市임으로「令市」라하는것이외다 누구든지 이상히넉이는 令市라는「令」字의解釋은 이法令의意味외다 三處의令市는 慶尙道大邱 忠淸道公州 江原道原州인데 其中에公州令은 最初全州에設立된것은 何라가지事故로(全州는地質土沃하야 令市가업서도人民의生活이自足함으로移來한것이한原因) 幾十年이못되여 公州로옴겨왓슴으로 公州令이 不盛할으로 十餘年前에 自然廢止되고 大邱한곳이 全朝鮮에 唯一한令市가되여 前號紹介함과가치 朝鮮經濟界에 莫大한好影響을 끼치는것이외다 令市가 大邱에 이런重要한機關임으로 本組合은 責任을益感하야 어듸外지 大邱令市의發展을 圖코저 自今으로는 奸猾中商輩를 極力禁治하고

客商의便宜와 親切을

크게힘스려함니다 더욱 藥材의 不精한것(假造)에對하여는 絶對嚴峻한處罰을 實行하려하는바 從來奸商輩의所爲를 略擧하면 鹿茸에 猪血을注하고 橘皮가三年을 묵어야 陳皮가되는것을 柑子皮를 栗子箱에서 取出하야 當秋에使用하고 細脈만잇서도 黃茯에害를밧는 茯令은 腐茯 五種藥을 混硏後公然販賣하고 [illegible] 石灰砂를混合하야 芒硝를하며 降眞香 蘇木等으로 沉香을 松脂로 琥珀 牛角으로 犀角을 雜腦로 鹿角腦하는等 因測한것이 多합니다 漢藥이 吾人의게

偉大한功効

를주는것은 [illegible] 大正三年本組合의設立以後로 多少矯正이되엿슴니다만은 今後로는 如斯한 藥商과 藥品은 絶對嚴禁하고 [illegible] 精製하야 藥

統營漫筆 面議員選擧에就하야

統營支局 一記者

統營에서도 今月二十日에 第二回面協議員總選擧를 行한다고 一部有權者側에는 選擧運動이 激烈한 모양이다 文化政治의 看板인 府面協議會制度에 對하야 그根本精神부터 臨時糊塗에 不過한지라 우리는 此에 對하야 何等의 滿足을 認하지 아니하얏다 元來 이協議制度로 말하면 該面歲出入豫算에 對한 面長의 諮問機關에 不過한 것으로 그人選에 關하야도 一般民衆의 意思로써 選擧하지아니하고 財産程度로써 有權者를 制限하야 選擧하는것이라 그러면 그의 行政도 民衆的이 아닐것이오 더구나 指定面이라 하야 面長이 官選日本人이오 議員에도 日本人이 多數되는 時에 朝鮮人의 直接意思와 間接生活에 何等의 神奇한 效果가 잇스리오 假使朝鮮人이 多數가 된다할지라도 政治의 根本부터 主從의 本位가 判然한 同時에 威勢와 能力이 薄弱한 朝鮮人이라 무슨 爭論發議할 勇氣가 有하랴 다못 名色만 托하고 尸位素餐으로 盲從하는 者가 多部分일 것이라 그러나 朝鮮總督府新施政의 一標榜인 府面協議制度는 그래도 將來地方自治의 初步이니 民意暢達의 試錬이니 하는 以上에는 吾人은 엇더한 限度內에서 『生存을 占有하리라』는 本意로 보아서 구태여 此에 應치아니할것도 업고 또한 理想的人物의 出馬를 期待치아니할수도 업다 그러나 今回選擧期에는 前回選擧期에 比하야 所謂相當하다할만한 人物들도 出馬하기를 不肯하는 者가 多한 모양이다 그들은 經濟의 脅威로 因함인지 時勢의 不與我를 因함인지 思想이 極히 沈潜하야 자못 消極的氣勢를 보이는 同時에 當地戶口에 比하야 有權者數를 보더라도 그 生活의 退縮된 現狀은 可矜할만하다 그들은 時運의 多艱함을 한歎하는 同時에 議論이 調和되지아니하야 無實한 名譽를 不嗜하는 一種淸高한 氣味로 보아는 오히려 無怪타 하것다 그러나 一面으로 좀 理想이 잇다는 人物로서 『아즉 우리의 心臟이 鼓動하고 感覺이 잇는 同時에는 可及的限度內에서 우리의 生活方을 開拓하여야 하겟다』는 그러한 義烈의 源泉한 點을 보아서는 너무도 思想의 墮落이 아닌가 한다? 그의 反面에는 一部 그러하고 무슨 理想이 잇는지 釣名獵流가 업는지 한갓 榮譽로만 알고(何等榮譽인지) 아모人望도 업시 私自運動으로 票數만 廣占하기에 汲々하야 醜態를 做出하는 事도 잇는 模樣이다 勿論 名譽慾이란 것은 사람마다 잇다고 하겟고 또한 잇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몬저 智德과 事業으로써 하지아니하고 名譽 그것만 取하려하면 名譽는 오지아니하고 恥辱만 오는것이다 現制度의 面協議員이 何等 完全한 智識을 要할것은 업지만은 그래도 面行政 即 朝鮮의 最急務인 敎育 産業 衛生等 大槪常識과 其他地方事情에 通適할만한 自信이 잇서야할것이오 또한 弱者의 自處로 卑屈 阿附 盲從等 醜態를 超脫할만한 自信이 잇서야 할것이다 이러한 自信이 잇고 『民衆의 運命에 可及的이라도 利益을 끼치리라』는 理想만 잇스면 어느 程度까지는 運動하는 것이 當然하다 할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名譽를 求하는 것이 아니오 社會事業에 用力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地方形便을 보아서 前者의 『名譽를 실혀』하는 人物도 좀더 勇氣를 내이고 後者의 『名譽를 조화』하는 人物도 좀더 諒解를 하야 適當한 人物을 預選하고 適當한 票數를 分配하야 아모조록 朝鮮人이 多數當選되도록 調和努力하라 그리하야 熱愛로써 團結하고 理想으로써 協議하야 地方의 急務와 民衆의 生活에 可及的 利益을 與하라 事物의 精通한 人物아 卑屈阿附하지 말고 어대까지 德望이 素存한 紳士야 無能盲從하지 말지어다 活動家야 名譽에 醉하지 마러라 理想的 靑年아 虛榮心을 바리고 좀더 强毅하게 좀더 眞理想만 가지면 아모리 神奇치 안은 協議制度이지만은 그래도 어느듯에 우리의 民衆生活과 統營社會의 運命에 不少한 裨益이 잇슬줄 안다

咸南蹴球大會

咸興體育會主催와 本社咸興支局後援의 咸南蹴球大會(雨天으로 因하야 延期되엿든)는 來二十三日(豫選戰) 二十四日(決勝戰) 兩日間 高普校運動場에서 開催할터인바 靑年團(中學園包含)과 少年團의 競技가 有하것고 申請은 二十日外지며 金遠熙氏와 咸興慈惠醫院看護婦가 救護에 從事케되얏더라(咸興)

南鮮鐵道開通 馬山郡北間

今春부터 工事에 着手하야 急々히 進行하든 南鮮鐵道는 來月一日부터 馬山과 郡北間에 汽車가 通行할터인데 當日에는 馬山府主催의 開通式宴會도 有하리라하며 明年冬期에는 晉州外지 開通되것을 豫想한다더라(馬山)

小作料四割을 兩地主又實行

全南順天郡黃田面에 土地를 둔 求禮郡良文面 韓道權氏와 光陽郡鳳岡面 尹昌燮氏는 今年秋監時를 當하야 該面農民大會幹部를 立會하고 小作料調定할時에 小作料割合은 全收穫의 十分之四(四割)로 調定하얏스며 今年度地稅와 諸公課도 決코 各小作人에게 轉嫁치아니하겟다고 聲明하얏슴으로 小作側에서는 感謝한다더라(順天)

民大趣旨宣傳 辯山에서

民立大學期成會辯山地方部에서는 中央部執行委員李甲成 白南震兩氏의 來辯을 機會로하야 民立大學의 趣旨宣傳文을 市內各戶에 撒布하고 또 米撰組合洋樂隊를 先頭로하야 市內를 一周하야 人氣를 集中케한後 去十日午後七時부터 開福洞禮拜堂內에서 洪鍾翊氏의 司會下에 宣傳講演을 開하얏는데 先히 演士李甲成氏의 獨唱이 有한後 繼續하야 氏의 講演은 누구나 民立大學의 必要를 認定치아니할수업다는 熱烈한 言論으로써 [illegible] 이란問題의 講演은 一般으로 [illegible] 寬兩氏도 또한 熱辯을 吐하고 午後十時頃에 閉會하얏는데 聽衆이 五六百名에 達하야 盛況을 呈하얏더라(辯山)

平壤新炭市場

每年冬期가 되면 新炭의 需要가 激增되고 此에 伴하야 松枝를 載한 牛馬가 市街道路로 不規則하게 通行함으로 交通의 支障이 不少할뿐아니라 價格도 統一이 되지못함으로 求賣人의 不便이 多함에 今般此等弊害를 一掃코저 平壤府廳에서는 去十一日 市內各地를 巡察하며 適當한 新炭市場을 選定한바 그場所는 左와 如히 五個所로 選定되얏스며 今年內로 市場을 開始케할 內定이라더라

平壤黃金町▲新陽里▲上營▲司倉市場▲平壤神社前(平壤)

府協議員豫選會

去十日午後七時 當地普通學校內에서 來二十日選擧할 府協議員豫選大會를 開催하얏는데 參席한 有權者는 六十餘名에 達하얏스며 臨時議長金基鴻氏가 昇席하야 集會한 趣旨를 簡單히 說明한後 李熙廸氏는 今般選擧할 府協議員은 우리의게 直接利害關係가 잇슨즉 우리의 意思를 代表할만한 人格者로 選擧할것은 勿論이오 其他投票에 對한 仔細한 說明이 잇슨後 立候補者選擧方法에 對하야 議論이 紛々하얏스나 結局은 詮衡委員十人을 選하야 그委員의게 一任하기로 一致可決되엿다 이에 그詮衡委員十人은 別室에 會合하야 立候補者四名을 選擧하야 發表하니 그氏名은 如左

立候補者 朴在鷹 金宗源 白孝俊 張晩梓(新義州)

高興男女勞働夜學

高興郡基督靑年勉勵會에서는 于今三年間 男女勞働夜學을 繼續하야 多數한 兒童을 敎導하야 오든바 今般女子夜學은 有志靑年諸氏의 斡旋으로 高興公立普通學校內에서 開學하기로하고 當勉勵會에서는 男子에게만 授學한다더라(高興)

載寧米豆檢查成績

黃海道米豆檢查所載寧出張所에서 十月中小麥檢查總數는 九百二十七叺인데 其中四等九百二十六叺 不合格一叺이오 大豆는 二千三十五叺에 全部三等이오 白米는 一百二十三叺인데 全部等外라더라(載寧)

載寧面議選擧期

載寧面에서는 十一月二十日 面協議員을 選擧한다는데 十區로 分하야 一區에 一人式 定한다하며 有資格者는 二十五歲以上으로 賦課金五圓以上納付하는者로 投票選擧한다는데 其場所는 左와如하다더라

一區	柳花里	柳花里金順烈方
二區	新岱里	新岱里金成澤方
三區	楠亭里	楠亭里安鎬燮方
四區	壽昌里	壽昌里方漢忠方
五區	石井里	鄕校里金慶俊方
六區	文昌里	文昌里鄭在裕方
七區	日新里 菊花里	日新里金亨植方
八區	碧山里 林泉里	碧山里林濟根方
九區	漢川里 陽山里	漢川里李宗京方
十區	內野里 旺峴里 蓬泉里	蓬泉里梁元鎬方

(載寧)

新換浦玄米檢績

黃海道米豆檢查所新換浦出張所에서 十月中玄米檢查總數는 二千二百八叺인데 其中一等二十六叺 三等一千九百三十九叺 四等八叺이오 白米는 四十六叺인데 全部四等이라더라(載寧)

咸興面議候補選擧

咸興面內各區長과 有志二十餘名이 去十三日下午一時 中荷里 [illegible] 에 會集하야 第二回面協議員選擧에 際하야 候補者를 立하자는 說明이 有하자 一般이 同意한後 臨時席長으로 李昌瀓氏 臨時書記로 李炯觀氏가 被選된後 候補者十一人(朝鮮人)을 選擧하얏는데 그氏名은 如左하다더라

金舜善 朴舜夏 金魯瀅 洪基穆 李炯 吳明根 李明雨 崔燦學 金洙根 朱鏞翰 金夏涉(咸興)

反馬講習所消息

公州郡反馬面馬岩里反馬講習所는 同里徐炯淳氏가 자기의 自擔經營하는바 生徒가 三十餘名인데 明年四月부터는 敎室을 增設하고 學生을 增募할터이라더라(公州)

義州德元義塾落成

義州郡水鎭面德峴洞有志金元日 張得善 金元明外四十餘人의 熱誠으로 百餘名收容할만한 德元義塾敎室을 前記德峴洞에 新築하얏는데 明春부터 學生을 募集敎授한다하며 科目은 普通科外 英語科를 別設할터이오 授業料는 一個年二十圓 寄宿費는 一個月小米二斗式이오 自炊할수도 잇다더라(義州)

順天勞働夜學會

全南順天勞働大會의 主催로 去十二日 同會館에서 勞働夜學會를 組織하엿다는데 被選任員은 左와如

會長李榮璟 副會長孫南三 總務金國洙 書記兼會計金益斗(順天)

道廳移轉祝賀協議

平北道廳은 來三十日에 新義州로 移轉한다함은 旣히 報道한바어니와 新義州府에서는 相當한 祝賀의 意로 表하기爲하야 去十四日午後七時에 官民多數가 府廳에 會合하야 祝賀方法에 對한 協議가 잇섯다더라(新義州)

中和面協議員選擧

中和郡中和面에서는 去十二日午前十一時 同面事務所에 有權者百餘名이 會集하야 面協議員의 投票選擧를 行한바 當選된 氏名은 如左하더라

北條源吾 宋暎燮 禹秉瓆 吳應鎬 文明國 金履浩 李昌洛 金昴涉 林在珪 林鵬模(中和)

義州面議暗中飛躍

義州面協議員選擧를 來二十日에 擧行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에 對하야 目下有權者間에 暗中飛躍을 試하야 자못 人氣가 緊張되얏는데 面民一般은 相當한 人士의 出馬를 企待한다더라(義州)

安城邑內面協議員

京畿道安城郡邑內面에서는 去九日 協議員을 選擧하얏는데 有權者五十六人(二年間每年面費五圓以上納入者)中 三十五人과 同面內有志諸氏가 出席하야 無記名式으로 投票한 結果 左와 如히 被選되얏더라

朴承六 朴弼秉 金濟弘 韓宇東 宋圭衡 町田八十熊 李源翊 俞鎭英 金泓 李致範(安城)

第一公普後援會

開城第一公立普通學校學父兄後援會에서는 去十四日午後二時 同校敎室에서 第一回總會를 開하고 理事長孔聖學氏가 臨時議長으로 陞席한後 過年度決算報告及今年度豫算案을 議決하고 後援會費負擔率에 若干의 修正을 加한後 校舍改築問題에 關하야 木佐貫校長의 意見開陳이 畢한後 同五時에 閉會하얏다더라(開城)

順天勞働夜學會

全南順天勞働大會의 主催로 去十二日 同會館에서 勞働夜學會를 組織하엿다는데 被選任員은 左와如

抱川에 衛生展覽會

京畿道警察部衛生課의 衛生에 關한 展覽會及活動寫眞은 去十一日부터 二日間 抱川公立普通學校에서 晝間에는 展覽 夜間에는 活動寫眞을 開催하야 一般人民에게 多大한 覺醒을 與하얏다더라(抱川)

●李布敎師送別 東萊佛敎堂布敎師李敬玉氏는 被任한지 四個星霜에 萬般苦勞를 무릅쓰고 布敎와 敎育事業에 多大한 貢獻이 有하든바 今般昌原聖住寺住持로 轉任됨으로 日昨佛敎人會 佛敎靑年會 佛敎女子靑年會 佛敎少年會 佛敎女子少年會等 佛敎團體七個團 五百餘名이 會集하야 送別會를 盛大히 開하고 氏의 功을 永久紀念하기爲하야 銀製紀念品을 贈呈하얏스며 音樂과 茶菓로써 惜別談話后 閉會하엿더라(東萊)

●新郎新婦 岡山金光中學을 優秀한 成績으로 修了한 韓鳳仁君(三〇)과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本科出身 陳孝淳孃(二三)과의 結婚式을 來二十六日(月曜)上午十一時 密陽城內陳盛一氏第에서 擧行한다더라(密陽)

各地靑年團體

善山靑年會夜學會

善山靑年會主催로 本月五日부터 善山公立普通學校內에 勞働夜學會를 施設하야 夜學會員四十名의 定數로 日語 朝鮮語 算術三科目을 講師同靑年會長李愚哲 同副會長姜來鵬 地方有志金秉學三氏가 各히 分擔敎授한다더라(善山)

陜川靑年會講演

陜川靑年會에서는 地方人士의 意見을 綜合하기爲하야 日昨講演會를 開催한바 郡廳庶務主任三澤介氏는 靑年運動, 鄭淳鍾氏는 農村問題, 郡廳産業係齋藤氏도 同問題, 鄭基東氏는 靑年運動, 李勉根氏는 靑年會發展策에 對하야 各々意見을 吐하얏더라(陜川)

平壤靑年理事會

平壤靑年會에서는 去十三日午後八時 館路基督敎靑年會館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고 同會의 復興策을 議論한後 來廿日總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一般會員의 無遺出席을 希望한다더라(平壤)

社告

一、分局의名稱 洪原分局

二、分局의管轄區域 洪原郡一圓

三、分局의位置 洪原郡邑內

四、分局員의職氏名 主任兼記者 崔浩郁 顧問 崔大鏞

右와如히直轄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管內에居住하시는愛讀者諸位는以此照諒하시옵소서

東亞日報社 白

社告

一、分局의名稱 保寧分局

二、分局의管轄區域 保寧郡壹圓

三、分局의位置 保寧郡熊川市場

四、分局員의職氏名 分局長 黃利顯 總務 金麟元 記者 吳玭 記者 金應時

右와如히本社直轄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管內에居住하시는本報愛讀諸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托等一切를直接交涉하시옵소서

東亞日報社 白

南鮮蹴球大會

日時 十一月十六、七兩日

場所 馬山俱樂部運動場

加入金 每團體金五圓式

抽籤 十一月十五日下午三時

選手 十一人、候補二人

大會規定 本年度大阪朝日新聞社運動年鑑에依함

主催 馬山崇武團、馬山克山洋靴店

後援 朝鮮日報馬山支局 東亞日報馬山支局 馬山實業家一同

南鐵開通祝賀會

時日 十二月一日午前十一時

式場 郡北停車場內

會員 金貳圓以上出捐者

主催 郡北靑年會 附近有志一同

後援 東亞日報郡北分局

童話歌劇大會

少年—少女

日時 來十七日下午七時

場所 馬山文昌禮拜堂

◇劇目◇

敎訓童話 少年金庾信(三幕)

少女歌劇 樂園(二幕)

少年歌劇 빗난無窮花(二幕)

◎入場料 三十錢 學生 十錢

主催 馬山勉勵靑年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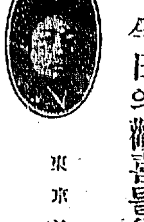
後援 東亞日報馬山支局

毛生藥 후미나인 의靈効에對하야 急告

[illegible]

六十日間의忍耐로 今日의歡喜를得한吾

東京 美富子



[illegible] 습니다。

로말솹만한缺陷도업시成長하엿슴니다。 [illegible] 날이가면갈수록커는漸々沈鬱하여지며 [illegible]

フミナイン은禿頭病의人、脫毛하는人、숫이적은人、元來毛薄한人、帽子로脫毛된人、眉毛薄한人、生際不良한人、머리메인人、男女間잇서야할곳에無毛、又는薄한人等諸般毛髮不足한데에用하야靈妙顯著하게毛를生케하고脫毛를止하는田中博士의責任方劑이다。代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藥店에販賣합니다 萬一品切時는代金을添하야發賣本舖로注文하시요 用法書添付小包便으로急送합니다

今回震火災로東京本店은全燒하엿스나幸히全員無事 大阪支店에서極力製劑頒布事業에從事하오니當分間該支店에注文하시오

大阪北區木幡町二十五番地 東京藥院支店 電話北一三七八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대번에逃亡가는 감긔의神

저울印의 헤부린

ヘブリン丸

감긔와熱에는 저울에달운것과가치 責任分量으로 훌륭하게有効함

감긔、熱이잇는時又는頭痛이날때는消化力이鈍하게됨으로可成消化하기쉬운食物을攝取하고熱이三十八度以上이되면身體를安靜하여야합니다 [illegible] ヘブリン丸을服用하야 [illegible] 必要합니다

Neither Cold nor Fever can oppose the "Febringan."

大阪市北濱 參天堂 合資會社

汽車時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